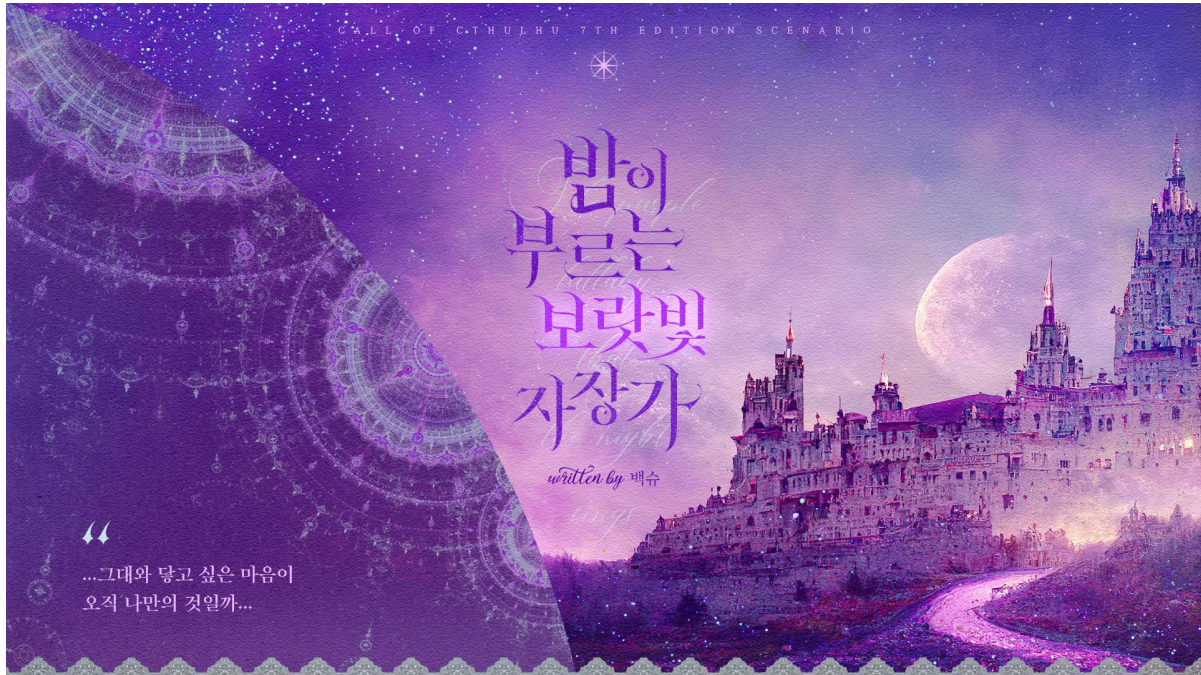


밤이 부르는 보랏빛 자장가

THE PURPLE LULLABY THAT THE NIGHT SINGS



w. 백슈

세션카드 커미션 ◆ 나룬님 (@NARooN_C)

약칭 ◆ 밤자장

최종 수정일 ◆ 2022.12.01

...그대와 닿고 싶은 마음이 오직 나만의 것일까...

개요

끼이이익—!!!!

타이어가 지면에 굽히며 내는 소음에 고개를 돌리면, 당신에게로 맹렬히 달려오는 차가 보입니다.

교통사고, 주마등, 죽음….

찰나의 순간에 이를 형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이것들이 당신의 마지막을 성공적으로 꾸며주진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현대가 아닌 중세.

마차가 흙먼지를 흠뻑리고 특이한 행색을 한 당신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즐비한 곳.

당신은 직감합니다. 당신은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임을.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당신을 바라보는 황제, KPC의 묘한 시선과 거침없이 선을 넘는 행동이 여간 신경 쓰입니다.

당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하지만, 점차 당신을 향해 선을 넘나들며 다가오는 사람은 비단 KPC 뿐만이 아닙니다.

은밀하고도 위험한 목적을 띄고 다가온 누군가가 당신의 뒷전에 속삭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살해해야만 한다고—….

시나리오 정보

- 크툴루의 부름(Call Of Cthulhu) 7판 룰 기준
- 인원 1:1 타이만
- 형식 폐쇄형 레일로드
- 배경 서양 중세(판타지)
- 플레이 시간 ~10시간+α (RP에 따라 유동적)

- **플레이 난이도** ●●○○○
- **키퍼링 난이도** ●●●○○(숙지할 내용 有 / 즉흥 RP 구간 多)
- **추천 기능** 관찰,듣기,은밀행동,대인기능 등
- **전투 요소**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로스트 요소** 있음
- **트리거** 교통사고(일 경우 초반 부분 살짝 개변이 필요합니다)
- **추천 KPC상** 제가 한번 탐사자와 지독하게 엮여 보겠습니다
- **추천 탐사자상**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줄타기 하면서 팝핀댄스 추게 됩니다
- **테스트 플레이** 完

주의사항

- 기본 [공지사항](#)을 꼭 숙지해 주세요.
- **황제 KPC (성별 무관) / 차원 이동 현대인 탐사자**
- 시나리오 제목의 색상은 KPC 고유 색으로 변경해 사용해 주세요. (ex: 밤이 부르는 [청록빛](#) 자장가)
- 본 시나리오 속 KPC와 탐사자의 관계가 초면 상정이지만, 진행 도중 스킨십을 유도하는 장면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불편하시다면 플레이를 재고해 주세요.
- 완전히 초면보다는 서사가 조금이라도 쌓인 연인 관계로 플레이 하시면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에 따라 수위 RP가 가능합니다.
- 볼륨이 살짝 있으며, RP 구간이 많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느긋하게 플레이하시면 좋습니다.
- 탐사자의 국적,언어가 달라도 중세에서 소통이 잘 된다는 시나리오적 막무가내 허용이 존재합니다(...)
- 시나리오 내에서 쓰이는 주문 및 아티팩트가 추가, 변형되어 있습니다.
- 스토리에 큰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의 개변 가능합니다. 개변한 시나리오는 언급, 배포하지 말아 주세요.
- 시나리오 내 모든 기믹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재량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에 관한 질문 받지 않습니다.



이후 시나리오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요에 해당되는 도입부를 짧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진상은 포함되지 않지만, 기믹 등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KP 예정인 분들만 열람해 주세요.

START

- 시나리오는 스토리 위주로 적혀 있으며 총 3일 차로 진행됩니다. 개변하여 n일 차로 늘려 RP를 더 길게 즐기셔도 좋습니다.
- 지문이 매우 많습니다. RP로 바꿔서 사용하시거나 편하게 개변, 삭제해 주세요.
- KPC,NPC의 말투는 재량껏 수정해서 사용해 주세요!

【Chapter. 1】

끼이익—!!!

한밤 중이었습니다. 젖은 노면을 거친 마찰음으로 빚어내는 타이어 소리에 탐사자가 고개를 돌린 것은.

그래요. 당신에게 맹렬히 달려오는 차를 보고 우뚝 굳을 수밖에 없었던 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무릎까지 다가온 보닛을 확인한 순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것도,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피어오른 것도,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닥쳐올 거란 예감이 든 것까지. 마치 당신은 이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디로 귀결될까요?

[관찰 판정]	
성공	그 일촉즉발인 찰나의 순간, 시선 끝에 누군가가 보입니다. 중세 시대 망토 같은 걸 폭 뒤집어쓴 사람이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어요. 꼭…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할 줄 알았다는 듯한 분위기로….
실패	그 일촉즉발인 찰나의 순간, 시선 끝에 누군가가 보입니다. 중세 시대 망토 같은 걸 폭 뒤집어쓴 사람이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어요.

저 사람은 누구죠? 주변이 어두워서 깊게 눌러쓴 후드 속 얼굴이 보이지 않…. …아아, 이런. 타임 오버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시야는 온통 흰빛으로 물들고, 탐사자의 몸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아니.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망가져버린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득 눈을 떠보자 중세시대 어드메쯤 되어 보이는 길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있으니까요. [MP -Y]

(Y의 값은 탐사자 총 마력의 $\frac{1}{3}+1$ 값으로 정해 주세요. ex: 총 마력 15일 경우 Y=6)

맹렬히 달려오는 자동차도, 부딪치면 생겨야 할 상처도 없는 이곳은... 어디죠? 사후세계일까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낡은 형궤를 댄 마차와 중세시대 평민 복장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주위를 바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모래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 건물은 하나같이 키가 작고 빛바랜 흙색입니다. 도심에선 쉽게 들을 수 없는 히이잉—, 하는 말 울음소리가 꼭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어디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이라고 생각할법한 생경한 광경이라, 저도 모르게 카메라나 스태프들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들을 촬영하는 카메라팀이나 조명, 감독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당신의 마지막 기억은 교통사고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만히 있는다면 >

(오지랖 넓은 사람이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고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주변 사람을 잡고 물어보면 >

(탐사자가 무슨 말을 물어보던 요 근래 환각제를 들이마신 정신 나간 사람이 많다더니- 하며, 병원에 데려다 주려 합니다.)

죽기 전에 본 후드 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려 본다면 >

(관찰/지능 판정 성공 시, 키클 체구는 탐사자랑 엇비슷하거나 좀 더 컸던 것 같지만 워낙 품이 넉넉한 망토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었던 터라 확실치 않습니다. 라고 출력해 주세요.)

죽기 전에 본 후드 쓴 사람을 찾는다면 or 병원에 가려고 한다면 >

[지능 판정]	
성공	그때, 저 멀리 거대한 나무문이 열린 성벽 틈으로 빠르게 걸어가 사라지는 사람을 목격합니다. 어라? 그런데 저 사람… 어디선가 봤던 복장을 입고 있지 않던가요? 보랏빛 망토에… 깊은 후드를 눌러쓴…. 그래요!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찰나에 봤던 그 사람이 분명해요! 경황이 없었기로서니 시대에 맞지 않는 그 기묘한 모습을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죠!
실패	그때, 저 멀리 거대한 나무문이 열린 성벽 틈으로 빠르게 걸어가 사라지는 사람을 목격합니다. 어라? 그런데 저 사람… 어디선가 봤던 복장을 입고 있지 않던가요? 보랏빛 망토에… 깊은 후드를 눌러쓴….

병원에 가보아야 되겠다고 붙잡는 손들을 뿌리치고 다급히 성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수상한 인물은 분명 이 성벽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유일하게 당신과 맞닿아 있는 그를 찾아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 양쪽에 서 있던 문지기들이 창을 엑스자로 가로막아 섭니다.

문지기 : “멈추십시오! 이 이상 함부로 다가오면 침입자로 여기겠습니다! 정체를 먼저 밝히십시오!”

(탐사자가 ‘국적’을 말할 때까지 정체를 물어봐 주세요. 하단은 ‘대한민국’ 일 경우의 예시입니다.)

당신이 국적을 밝히자, 당신을 험악하게 몰아붙였던 문지기들이 돌연 뻔뻔하게 굳습니다. 흡사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네요. 그들은 황급히 당신에게 들이댔던 창을 거두고선 고개를 하늘로 꺾고 우렁차게 소리칩니다.

문지기 : “머, 멀리 ‘태항민국’에서 오신 사신님께 굉장한 무, 무례를 범했습니다!! 황제폐하께서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어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지기들이 잘못 알아들은 나라는 KPC 제국과 수면제를 교역하기로 한 나라라는 설정입니다.)

으음…? 무언가 소통이 잘못된 느낌이지만 여하튼 창에 찔려 객사할 뻔한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얼른 수상한 망토만 후딱 찾아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문지기 한 명이

보필하듯 옆으로 다가옵니다. 도망갈까도 생각해 봤으나, 이미 오해를 산 와중에 도망간단들...
괜찮을까요? 이도 저도 안된다면 기회를 엿봐 감시가 소홀할 때 도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지기 : “사신 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두터운 나무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끼이익- 열립니다. 그 안쪽은 인터넷이나 영상매체로만 접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원입니다. 정중앙에 자리한 분수가 쉼쉼- 맑은 물소리를 내며 물방울을 튕겨내고, 그 주변으론 아름답게 반짝이는 윤슬이 돋보이는 연못이 보입니다. 곳곳에 놓인 정갈하게 다듬어 만든 원뿔형 토피어리는 봄날의 푸릇함을 한껏 자랑하고, 색색의 향기로운 꽃밭이 이를 멋지게 감싸 장식해 줍니다. 단단하게 다진 평평하고 고른 바닥과 산뜻한 초목이 한 데 어우러져 근사한 풍경을 선사하네요.

그러고 보니 조금 전 문지기가 ‘황제폐하’...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이곳이 궁전인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큰일 아닌가요? 무언가 단단히 오해를 산 것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안타깝게도 이 드넓은 곳에선 직접 발품을 팔지 않는 이상, 수상한 망토를 찾기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저 망토 주인만 찾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꼬인 거죠?

두려움에 손발이 떨려오지만, 당신의 옆에서 걷고 있는 문지기의 다부진 턱을 보니 도망은 요원해
보입니다.

(KPC와 대면하기 전, 문지기와 잠시 대화가 가능합니다.)

Q. 망토 입은 사람의 정체?

- 황궁에서 일하는 비밀 심부름꾼들 중 한명일 것이다. 누군지는 모른다.

Q.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 알현실로 간다. 지금 대신들과 회의 중이지만, 당신은 폐하께서 손꼽아 기다리던 사신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다.

Q. 왜 사신을 기다리시는지?

- 그건 사신인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는가?

결국 도망갈 틈을 노리는 내내 별 소득 없이 문지기를 따라 궁전 내부로 들어갑니다. 하얀 대리석과 황금이 번쩍거리는 궁 내부는 바깥과 또 다르게 별세계입니다. 거대하고 찬란한 상들리에가 걸음걸음마다 하나씩 달려있고, 미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각종 장식물은 하나같이 황금과 보석을 두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짜인 창틀의 무늬대로 비추는 햇살은 조각조각 아름다움을 흩뿌리며 따스한 온기를 전합니다. 궁전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호화스럽습니다.

[지능 판정]	
성공	대체 눈을 어디다 뒀야 할지 모르는 화려함의 극치에 조금은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네요. 가뜰이나 궁전 바깥의 남루한 거리 풍경을 보고 와서 더욱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황제라는 작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꽤 사치를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실패	대체 눈을 어디다 뒀야 할지 모르는 화려함의 극치에 조금은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네요. 가뜰이나 궁전 바깥의 남루한 거리 풍경을 보고 와서 더욱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곧 아름답게 세공된 커다란 문 앞에 선 문지기가 두어 번 노크하더니 큰 소리로 고합니다.

문지기 : “실례합니다! 태항민국의 사신 님을 모셔왔습니다!”

문지기의 우렁찬 외침에도 문 너머는 고요합니다. 혹 못 들으셨나 해서 문지기가 다시금 입술을 크게 벌리던 찰나, 다소 힘없는 목소리가 문 틈새로 새어 나옵니다.

KPC : “...들라.”

작디작은 소리임에도 당신의 귓가에 선명하게 내리 박히는 음성입니다. 그다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저음은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지만 듣기 좋은 울림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섬세하고도 올곧은... 한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의 목소리는 이런 건가요? 가슴을 기분 좋게 두근거리게 하는 음성에, 그 음색을 지닌 자의 외관이 못내 궁금해집니다.

(적당히 개변해 KPC의 성향을 묘사해 주세요.)

《알현실》

이내 천천히 문이 열리고, 문지기의 떠미는 손길에 당신은 얼떨결에 알현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웅대한 알현실 내부는 상당히 넓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문과 창문 쪽에는 허리춤에 장검을 찬 병사들이 즐비하고, 나이대가 천차만별인 대신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야... 알현실에 들어오자마자 정면에서 눈이 마주친 사람 때문이죠.

정면의 화려하고 웅장한 의자에 나른한 자세로 턱을 괴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의 신분은 애써 추리하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붉은 왕관과 새하얀 털이 달린 벨벳 망토. 찬연하게 빛나는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목걸이와 반지. 그가 두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를 황제라고 인식한 것은 비단 그것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구든 우러러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 누구보다 고귀한 분위기를 띄고 있는... 그의 고고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그의 신분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황제는..., 느긋하고 나른한 자세로 당신을 향해 손짓합니다.

KPC : “...가까이.”

그리고 당신은 홀린 듯 다가갑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어떠한 위험 속을 지르밟는지도 모른 채.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외관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부드러운 크림색 머리칼은 햇살을 받아 눈부신 광택이 빛줄기처럼 흐르고, 눈꽃처럼 흰 피부와 은빛을 머금은 깊은 눈동자. 날렵한 턱선과 모양 좋은 입술조차 붓으로 그린 듯한 완벽함을 선보입니다. 정말이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가 황제라서인지, 황제라는 신분이 그리 만드는지... 광채가 깃든 그 모습에 도통 시선을 떼기 힘듭니다.

(편하게 개변하셔서 KPC의 외관을 묘사해 주세요.)

그러나….

[관찰 판정]	
성공	곧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상당히 수척하다는 것ですよ. 볼이 패일 정도로 핏색한 그 모습은 마치 몇 날 며칠 굶거나, 아팠거나, 극심한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실패	곧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상당히 그늘져 있다는 것ですよ.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순간, 그의 얼굴을 살피는 당신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황제의 한쪽 눈썹이 휘 들립니다. 아뿔싸! 여긴 당신이 머물던 현대가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황제를 이렇듯 똑바로 쳐다보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요? 게다가 제대로 된 인사도 올리지 않았잖아요?

(눈을 내리깔거나, 인사를 올리면 듣기 판정을 진행해 주세요.)

[듣기 판정]	
성공	내리간 시선에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바닥이 보입니다. 어찌나 깨끗하게 닦아 두었는지 당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쳐 보여요. 그 비치는 얼굴 위로 당신을 향한 대신들의 욕설이 흩뿌려집니다. “아무리 타국에서 왔지만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군요.” “쫓. 폐하의 사정만 아니었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나라이건만.” “폐하의 표정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대답을 들고 왔다고 한들, 저 자에게 결코 좋은 대접은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쓸데없이 귀는 밝아선. 듣기 싫은 얘기만 잔뜩 듣고 말았네요.
실패	내리간 시선에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바닥이 보입니다. 어찌나 깨끗하게 닦아 두었는지 당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쳐 보여요. 그 비치는 얼굴 위로 당신을 향한 대신들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아무리 타국에서 왔지만 ……라곤 찾아볼 수 없군요.”

“쫓. 폐하의 사정만 아니었다면 …… 앓았을 나라이건만.”

“폐하의 표정을 보십시오. 아무리 ……을 들고 왔다고 한들, 저 자에게 결코 좋은 ……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잘 들리진 않지만… 축이 말해줍니다. 저건 분명 당신을 향한 욕설일 것이라고요.

KPC : “그만 고개를 들라.”

황제의 명령을 따라 고개를 들자, 곧장 시선이 마주칩니다. 설마… 계속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순간,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이채가 스칩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호기심, 기대감, 의문, 목적… 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눈동자가 당신을 지그시 응시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선에 대신들이 수군거린 욕설처럼, 당신을 향한 악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호의라고 하면 또 모를까.

KPC : “먼 곳에서부터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군. ‘블리딩 하트’의 교역에 대한 답을 어서 들려주겠는가? 모쪼록 내가 기대한 답변이길 바라지. 그것을 내줄 수만 있다면 후한 값을 치려주겠단 제안은 단순 허황이 아니었으니 말이야.”

(블리딩 하트(Bleeding Heart) : 금낭화, 수면제 효과를 지닌 꽃)

그의 어조에, 그의 눈빛에서 엿보았던 마음이 들리는 듯싶습니다.

그나저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망설여집니다. 만약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마음으로 긍정의 뜻을 밝혔다가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실 사신이 아니라고 부정하기엔 감히 낯선 신분으로 황제의 지척까지 다가온 거짓말쟁이가 되어… 사방에 둘러싼 병사들의 검날에 몸뚱이가 두 동강 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대답하기만을 기다리는 여러 시선이 당신의 입술로 쏘아대듯 쏘입니다.

과연… 황제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답하든 결론적으로 탐사자는 당분간 궁전에 머무르게 됩니다.)

(‘블리딩 하트’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한다면, 자연 판정 성공 시 ‘꽃의 이름’ 이란 것을, 의료 판정 성공 시 ‘수면제 추출 재료’ 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교역을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한다면
당신이 ‘블리딩 하트’의 교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자, 황제의 표정이 한층 밝아집니다. 그늘진 얼굴에 설핏 희망이란 감정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 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면
당신이 ‘블리딩 하트’의 교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자, 황제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더니 이내 결정을 내린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마주합니다.
- 사실 현대에서 온 사람임을 알린다면
될 대로 돼라, 하고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사연을 와락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구겨지더니 볼멘소리를 늘어놓습니다. KPC :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당했군.” 황제의 언사에 주변에 있던 대신들이 수군거립니다. 얼추 이야길 들어보니, 제국 국경을 넘어올 때 지나야 하는 지역에 도사리는 환각제를 잔뜩 들이마셨을 거라느니 뭐라느니 하며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토로해도 절대 믿어주지 않을 기세네요.

KPC :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그대를 돌려보내 주려면 내 쪽에서도 준비가 필요할뿐더러 먼 곳에서 오느라 피로 또한 상당하겠지. 당분간 머무를 곳을 내어주도록 하겠다. 시종장.”

KPC가 손짓으로 곁에 서 있던 시종장을 불러 그의 귓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그러곤 그를 당신의 곁으로 보내며 명령합니다.

KPC : “탐사자를 극진히 모시거라.”

시종장에게 명령하는 황제의 모습에 대신들 사이로 한차례 술렁거림이 일어납니다. 아마, 당신을 극진히 모시라는 명령이 꽤 당혹스러운 눈치입니다.

(KPC는 1년간 계속된 수면 장애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여러모로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대신들은 갑작스러운 KPC의 다정함에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 사실을 듣기 판정으로 넌지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시종장을 따라 엄숙한 분위기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알현실을 빠져나옵니다. 당장의 상황은 어떻게 간신히 모면한 것 같긴 하지만... 언제 정체를 들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는 건 궁전의 경비가 몹시 삼엄하다는 것과 여기저기 보는 눈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무사히 도망치려면 최대한 정체를 숨긴 채로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시종장과 손님방으로 향하는 도중에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Q. 어디로 가는지.

- 당분간 머무를 침실로 안내해 주겠다.
(정확한 방의 이름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KPC의 은밀한 명령을 따라, 황제의 침실로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Q. 황제는 어디가 아프지.

- 우리 측 사신에게 전달받았겠지만, 황제는 현재 극심한 수면 장애를 앓고 계신다. 하루 10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계시는 중이며, 이 때문에 당신 나라의 '블리딩 하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Q. 블리딩 하트가 무엇인지.

- (사신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묻는 탐사자에게 의문을 갖지만, 으레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해서 정신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만 피어나는 꽃이다. 꽃엔 수면제 효과가 있는데, 우연히 몇 송이를 구해 황제께서 사용해 보셨더니 아주 잘 들었다. 하지만 지속 시간이 한나절밖에 되지 않아 많은 양이 필요했고, 교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Q. 망토 입은 자의 정체를 묻는다면.

- 대신들이나 고위 귀족들은 전부 비밀 심부름꾼을 두고 있다. 정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궁전 내에서 생활하다보면 종종 마주칠 때도 있다.

Q. 황제가 왜 나를 극진히 모시라고 했는지.

- (시종장은 이 질문에 오히려 의아하단 표정으로 탐사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습니다. 그야, 황제가 본인 침실에 탐사자를 들이겠다고 하니... 외모가 마음에 들었나 싶어서요. 대답은 재량껏 해주세요! 탐사자를 마뜩잖아 할 수도 있고, 수려한 외모에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시종장과 대화하며 화려한 복도를 걷다 보면, 어느새 비슷비슷한 형태의 방문이 즐비한 곳에 도착합니다. 개중 한 방문 앞에 선 시종장이 당신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시종장 : “이곳이 사신님께서 머무르실 손님방입니다.”

그 말에 방문을 열고 안쪽을 살펴보려는 찰나, 갑자기 시종장의 팔이 앞으로 쏙 들어와 가로막습니다.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자 시종장이 표정 없는 얼굴로 입술을 엮니다.

시종장 : “이곳은 사신님께서 ‘표면적으로’ 머무르실 곳이고... 일단 이쪽으로 함께 가시죠.”

시종장은 방 구경도 시켜주지 않은 채 생뚱맞은 곳으로 향합니다. 대체 어딜 끌고 갈 거냐고 물어도 가보면 안다며 묵묵부답인 시종장의 뒤를 따라갑니다. 문득 당신을 ‘극진히’ 모시라고 했던 말에 주변 신하들이 뜨악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무래도 황제는 평소 그렇게까지 따스한 편이 아니었던 것 같으니... 혹시, 골방이나 감옥 같은 곳으로 안내하는 걸까요?

하지만 당신은 곧 자연스레 깨닫습니다. 허름한 곳으로 끌고 가기는커녕, 오히려 발걸음을 옮길수록 주변 경관이 점점 더 웅장하고 화려해지고 있다는 것어요. 치밀하게 음각된 기둥들이 나열된 복도와 계단 몇 개를 지나, 돔 형태의 아름다운 로비를 넘어, 드넓은 공간에 단 하나의 문이 자리한 곳에 도달합니다. 조예 깊은 실력자가 만들었을게 분명한 품위 있는 문은 가히 압도적이기까지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얼떨떨하고 있는 사이, 두 짝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립니다. 시종장은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방 안쪽을 가리킵니다.

시종장 : “이곳이 사신님께서 ‘실질적으로’ 머무르실 곳입니다. 과녁치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앞에 보초병이 항상 있으니,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황제의 침실》

거의 밀어 넣어지다시피 들어가게 된 방문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힙니다. 대체 뭘까요? 당신을 고작 타국에서 온 사신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방을 내주는 건가요?

방을 둘러보면, 섬세한 자수가 놓인 캐노피가 침대 위를 멋스럽게 장식하고, 고급스러운 가구와 소파, 장식품들이 한가득합니다. 너무도 호화스러워서 편하게 사용하라곤 했지만 쉽사리 손을 대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아치형의 [창문]은 반투명한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반질반질하게 손질을 잘해놓은 티 테이블 위엔 수십 개의 [작은 유리병]이 놓여 있습니다.

● 창문

손 안에서 사락사락 소리를 내는 질 좋은 커튼을 걷어봅니다. 창문은 걸쇠만 열면 손쉽게 열 수 있으나, 바깥을 내다보면 저 멀리 푸릇한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아찔한 높이입니다. 적어도 창문을 통해선 탈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작은 유리병

티 테이블에 정갈하게 놓인 유리병들은 어림잡아 50병은 되어 보입니다. 하나같이 검은 액체를 담고 있으며, 맨 첫 줄에 놓인 단 하나의 유리병만 다 마셔버린 듯 비어있습니다. 코르크 마개로 입구가 막혀 있어 그 안에 든 것을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KPC가 매일 밤 수면에 도움이 되려고 마시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독성이 있으며, 마실 때마다 HP가 1d3씩 깎입니다.)

(탐사자가 마개를 열어 냄새를 맡는다면 고약한 악취를 맡게 되고 [이성 판정 0/1]을 진행합니다. 만약 마신다면 HP -1d3 해주세요. 약학 판정에 성공하면 정확한 것은 몰라도 상당히 위험한 재료가 들어 있는 약물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브티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스나 여타 음료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왜 이 고약한 액체들을 수십 개씩 구비해 놓은 걸까요? 설마 싶지만..., 당신 보고 이걸 마시라고 강요하진 않겠죠?

조사를 마치면,

그나저나 이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그 수상한 망토를 입은 작자도 찾을 수 없고, 탈출도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방 밖으로 보초병이 서있을 테고... 어쩌면 좋을까요?

그때, 별안간 아무런 언질도 없이 육중한 방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립니다.

놀라 바라보면, 더 놀라운 사람이 거리낌 없이 방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KPC : “방은 마음에 드는가?”

돌연 들이닥친 사람은, 바로 황제입니다.

시나리오 전문은 시나리오집 <링크드 리스트/키스톤 브릿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